

남도의병역사공원, '의향 나주' 품으로

전남도·광주전남연구원, 나주시 공산면 영상테마파크 일원(약36만㎡) 부지 1순위 선정

나주시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사업대상지 1순위에 선정됐다.

나주시는 6일 전남도·광주전남연구원에서 발표한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지 1순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1순위 선정 부지는 '나주시 공산면 영상테마파크 일원' (약36만㎡)이다.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전남도 민선 7기 공약으로 위기 때마다 구국에 앞장섰던 의병들의 충혼을 기리고 역사를 정립해 도민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33만㎡(약 10만평) 부지에 박물관·전시실·테마파크·상징조형물·학예실·교육관·역사숲·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해 부터 추진돼온 역사공원 유치전에는 나주시를 비롯해 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장성·구례군 등 도내 8개 시·군

이 참여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8개 시·군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 등 서류심사와 발표회, 현장실사 등을 거쳐 나주시와 보성군을 각각 1, 2순위 우선협상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나주시는 역사성, 경관성, 사업추진 의지, 접근성 측면 등에서 최종 후보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우선협상 대상지 1순위 선정 관련 입장을 내고 역사공원 유치에 따른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남도의병정신 계승과 확산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실무를 담당할 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과는 12만 나주시민, 70만 향우, 광주·독립운동단체, 역사공원 유치추진위원회, 지역 기관·사회단체 등 그동안 역사공원 유치에 힘을 모아준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외의 경쟁에 함께한 도내 시·군에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남도의병정신을 미래가치로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사업부지(공산면 영상테마파크 일원)에 대해 "전라도 문화의 모태이며 의병활동을 지탱한 의곡(義穀) 생산의 수송로이자 향정의 현장이었던 영산강으로 부지가 선정돼 의병정신을 기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했다.

그러면서 "영산강 물줄기를 바라보며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목숨을 다해 앞장섰던 선조들의 의병정신을 되새겨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시장은 "영산강에 조성될 남도의병 역사공원은 의병정신의 교육과 추모의 장이자 나주가 구국정신의 본 고장임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역사공원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곡성 농특산물 인기

곡성군 매출액 약 5300만원...전남 총 매출액의 35%

곡성군은 지역농특산물이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농특산물 브랜드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에서

농특산물 브랜드관을 운영했다. 곡성 농특산물의 총 매출액은 5300여 만원으로 전남 총 매출액의 35%를 차지했다.

곡성군은 멜론, 백세미, 토란파이만주, 감자, 발효차, 청국장, 숯불우과, 단호박, 꽃 등 근 대 표 농특산물을 판매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구례학사, 서울 보금자리 대림동으로 이전

입사생 10명 추가 모집

전남 구례출신 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인 '구례학사'가 교동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이전하고 입사생 10명을 추가 모집한다.

7월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학사는 대지 416㎡, 연면적 1481.09㎡의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로 지하철 2호선·7호선 대림역에서 도보 7분,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주요 대학과의 접근성이 좋다.

원룸형으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싱크대, 전자레인지, 침대, 책상, 의자, 욕실 등이

구비돼 대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입사정원은 1인 1실 24명으로 기존 입사생 10명을 7월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조건은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대학원의 신입·재학생으로 보훈자가 입사생 선발 공고일(2020년 7월 2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성적과 생활정도를 평가 후 입사생으로 선발되면 8월 중순부터 대림동 구례학사로 등록 후 생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 담빛예술창고, 전시 'ART-HYBRID 예술展'

7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재)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관장 장현우)는 신관 개관전 <ART-HYBRID> 전시를 7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 참여작가는 김두원, 김혜경, 구인성, 박석, 박안식, 박현지, 박현진, 양문기, 이송준, 이시영, 이철규, 정맹용(팀), 조대원, 허이나 작가이다.

2015년 9월 첫 개관했던 담빛예술창고는 담양 세계 대나무박

람회와 함께 성공적인 지속 운영 사례를 만들었다.

신관은 복층구조로 바닥 기준 200여 평 등 전체 250평 규모로 마련됐다. 8-9월 쭈 준공 예정이며 전시장 외에도 휴게실과 세미나 등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신관 개관과 함께 마련한 'ART-HYBRID'전은 전국 공모를 통해 총 14명(팀)을 엄격히 선정했으며 이번 개관전이 갖는 의미 또한 다변화 시대에 새로운

문화와 조우할 모든 이의 관심을 위한 시도이며, 공간 해석과 담빛 기획에 부합된 약 80점에 이르는 다양한 융복합 작품이 신구관 전시실 내외에 설치되어 관람객에게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적으로 신관 개막식 행사는 9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담빛예술창고에서 별도 개막 행사 없이 10월 4일까지(8일간) 진행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독감예방백신

접종 독려...전군민 대상

장성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독감예방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올 겨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독감 유행과 겹칠 경우 군민의 건강은 물론 검사 및 의료 자원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군은 인플루엔자 유행 전 사전 차단을 위해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13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만18세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임신부와 만65세 이상 노인, 귀농인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백신의 종류도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된다. 작년까지만 무료 접종 백신이었던 4가 백신은 3가 백신에 B형 바이러스 1종이 추가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

접종 시기는 오는 가을부터다. 군은 9~11월까지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 연말까지 연장

화순군이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을 10% 적용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화순군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순사랑상품권을 6월 30일까지 10%로 할인 판매하고 7~8월은 8% 할인, 9월 이후 별도 할인을

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고 지역경제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10% 할인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화순사랑상품권은 오전 9시, 일만 원, 오만 원권 3종이 판매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

여행=박순철 기자